

20世紀 中期的 古書目錄과 版本記述 *

Korean Ancient Book Catalog and Description Matters in the Period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Book Cataloging

金致雨(Kim, Chi-Woo)**

◁ 목 차 ▷

1. 序 論	3.3 用語의 上·下位 概念
2. 目錄規則과 古書目錄의 種類	3.4 歷朝表示 問題
2.1 目錄規則	3.4.1 歷朝表示의 必要性
2.2 古書目錄	3.4.2 刊年の 歷朝表示 省略
3. 版本表示	3.4.3 著者の 歷朝表示 省略
3.1 位置	4. 結 論
3.2 用語	<참고문헌>

< 초 록 >

1923년부터 1954년까지 목록규칙의 도입시기이고, 1954년부터 1980년까지는 목록의 국제표준화시대로서 이 때 간행된 고서책자목록은 50종 정도이다. 이 중 20종의 고서책자목록을 선정하여 거기에 수록된 책수, 고서목록상의 배열, 기술양식 등을 간단명료하게 고찰하여서 당시의 고서목록을 서지적으로 알게 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는 고서목록에 대해서도 간행년, 판찬처, 서명 등을 제시하여 당시 그것의 전체적인 발간 현황을 알게 하였다.

기술사항 중 판본표시는 역조명을 판기하여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구명하여 보았다. 고서목록에서는 판본표시에서 역조를 표시하지 않아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려 이전의 간본에서는 간년에 역조를 표시하여 간년표시가 이원화되고, 또 외국의 간본에는 판본에서 역조대신 국적을 표시하여 판본표시가 이원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외국의 모든 간본의 판본에서 역조를 표시해 주면 되는 것이다.

요어 : 목록, 기술, 고서

* 본 논문은 2004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쓴 것임

**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cwkim417@star.kyungsung.ac.kr)

접수일: 2004년 11월 19일 최초심사일: 2004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S>

The method of Korean ancient book catalog was introduced from 1923 to 1954 and Korean ancient book catalog format was standardized with International book cataloging format from 1954 to 1980 and were published 50 titles. 20 titl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bout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e sum of titles, the arrangement of entities, and the format of description.

In describing the publication of nation, there are two way of description method. One is prior to successive dynasties over the publication of name of nation in cataloging ancient books in the case of Chosun dynasty or foreign nations. The other is successive dynasties were omitted at the back of Chosun dynasty. These method were broken out great deals of confusing.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this survey was emphasized that in describing the publication of the name of nation is more efficient than that of the other method.

Keywords : catalog, description, ancient book

K C I

1. 序 論

20세기 중반기에 발간된 古書目錄을 최대한으로 조사하여 전체적인 발간 현황을 알아보고, 그중 서지적으로 특색이 있는 대표적인 목록을 선정하여 거기에 수록된 책수, 古書目錄上의 배열, 기술양식 등의 서지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 때 발간된 古書目錄은 조사한 바로는 50종이 된다. 여기서 중반기라고 함은 1923년부터 1980년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간행된 고서목록은 그 이후의 것이라도 본고에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논고에서 다루지 않은 20世紀 末期 以後의 古書目錄과 서지사항의 분석 고찰은 추후에 발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전체 古書目錄을 서지적으로 다루어 보고자는 하는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특히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판본기술에 중점을 두고 다루어 보고자 한다. 古書目錄에서 판본의 표시는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간본은 판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판본을 거의 기재해 주고 있다. 판본은 고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이판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서는 판차가 바뀔 때는 판본을 달리하므로 비록 그것이 간행의 정확한 순서는 아닐지라도 판차의 역할을 대신한다. 또 고서는 판차를 알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판본만큼 왜차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본표시는 꼭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古書目錄에서 판본의 표시 위치는 판사항, 간행사항 및 형태사항의 3곳이다. 판본과 같은 특수한 기술사항은 古書目錄에서만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기재 위치나 방법이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하다. 古書目錄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이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古書目錄의 요체가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중요한 판본표시에 대해서 목록규칙적 입장에서 논의 된 것은 있으나 그것에 의해서 작성된 古書目

錄을 통하여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古書目錄의 판본표시 방법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目錄規則과 古書目錄의 種類

2.1 目錄規則

1923년부터 1953년까지는 목록규칙이 도입된 시기이다. 이 때에는 나온 목록규칙으로 1948년에 간행된 「(朝鮮)東書編目規則」이 있다. 이 규칙은 서명주기입목록으로 東書 정리를 위한 규정이다. 이것은 古書目錄 작성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규칙이다.

1954년부터 1979년까지는 목록의 국제 표준화 시기이다. 이 때에는 나온 목록규칙으로는 「韓銀圖書編目法」과 「韓國目錄規則」 등이 있었는데 대개 국제 목록규칙에 맞추고자 하였다. 이 규칙은 저자명주기입목록이며, 특히 전자는 東書와 洋書에 공용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 이 때 발간된 古書目錄 작성 전용 규칙으로는 천혜봉 저, “古書目錄에 있어서 當面한 諸問題”와 「古書分類目錄法」(上,下), 백린 편, 「古書目錄規則」, 그리고 김치우 편, 「古書目錄規則」 및 「古書編目規則」 등이 있으며, 모두 저자주기입목록이다.

2.2 古書目錄

목록규칙 도입시기인 1923년부터 1953년 사이에 작성 발간된 古書目錄은 주로 해제류이다. 당시에 나온 목록으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편찬된 것은 1종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양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목록의 국제표준화 시기인 1954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작성 발간된 古書

目錄은 상당수 되며, 기술형식은 목록규칙에 의거한 것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양식에 의거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판중이나 판식을 기재하고 있는 목록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古書目錄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책자로 발간된 古書目錄은 49종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古書目錄은 모두 50종이다. 그 중 20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것들의 편찬체제를 그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수록된 목록을 1개씩 예로 제시하여 기술의 특성을 알게 하고, 이어서 판식의 기술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머지 30종에 대해서는 古書目錄의 이용자에게 참고가 되도록 편찬 연대순으로 편찬처와 목록의 서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표본에서 1개씩 예시된 목록의 기입에서는 본체만을 기재하되 판식이 주기에 있는 것은 그 판식주기만을 기재하고, 기타 주기는 일체 생략코자 하며, 청구번호가 있는 것은 목록의 맨 끝에 원괄호로 묶어서 기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별행으로 기재되는 것은 지면 관계상 “△”표를 하고 앞 사항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1) 「淸芬室書目」은 한국서지학의 개척자 이인영이 1937년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우리나라의 고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수집한 것 중에서 선본 570여종을 골라 1944년에 定稿한 서목이다. 이 서목은 1968년 보련각에 의해 영인 보급된 것이 있다.

기술은 서명을 표출하고 권책수, 저서표시에 이어 형태서지적인 해제를 붙이고 있다. 특히 간행년과 판중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활자의 표시가 종래의 여러 서목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정확한 점이 그 특징이다.

배열은 내용과 같이 독자적으로 분류하여 열거하였다. 卷 1, 2에 朝鮮人撰述의 壬辰以前 刻本과 鈔本(上下), 권 3, 4에 外人撰述의 임진이전 각본과 鈔本(上下), 卷 5에 조선인찬술의 임진이전 활자본, 卷 6, 7에 외인찬술의 임진이전 활자본(上下), 卷 8, 9에 조선인찬술의 임진이전 刊本 및 鈔本(上下)을

수록하고 있다.

판식기술은 찬자 다음에서 광곽의 종류, 계선, 향자수, 광곽의 크기 등을 기재하고 있다.(同書, 49면)

作聖圖論 一卷 一冊 △ 端宗二年甲戌 錦山刻本 權探撰 四周雙邊 有界 每半葉九行 行十八字 匡郭長十六.五釐一一.五釐 黑口

이상의 서목 외에도 1953년까지의 古書目錄으로 유명한 것은 「朝鮮醫書誌」, 「古鮮冊譜」, 「朝鮮舊書考」와 「朝鮮語學史」 등이 있으나 모두 日人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다.

2) 「澗松文庫漢籍目錄」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에 소장된 고 간송 全鑿弼의 소장 도서중 한적의 목록만 수록하여 1967년에 편찬한 것이다.

배열은 경사자집의 사분법순으로 하고,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는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 권책수, 편저자명, 간행년대, 간기 및 주기, 판종, 크기, 광곽, 향자수, 어미 등의 순으로 하였으며 이중 서명은 권두서명을 채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서, 발, 비고 등을 기재하였다.

수록된 한적중에서 내용면이나 서지학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지닌 도서에 대해서는 동빈 김상기의 해제를 맨 앞에 실은 것이 특징이다. 권말에는 편·저자명과 서명으로 구분하여 가나다순으로 작성한 색인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141 면)

儉巖山人詩集(表紙書名：儉巖集) 2卷1冊 △ 范慶文(朝鮮)著 純祖14年甲戌(1814 嘉慶19) △ (活)(鐵鑄字, 芸閣活字) 19×31.2 四周雙邊 半郭：14×22.1 有界 10行20字 白口 白魚尾上 (集部 別集類)

3) 「韓國古書綜合目錄」은尹炳泰가 1958년이래 조사한 고서 총 3만7천여 종의 목록을 바탕으로 하고, 이후 계속 추가·보완하여 1968년에 국회도서관에서 간행하게 된 것이다.

이 자료의 소장조사는 일차적으로 국내의 既刊 古書目錄과 외국의 장서목록을 가능한 한 조사하여 수록하였고 다음에 국내의 고서 소장처의 조사는

공공 및 대학도서관, 단체, 중고등학교, 개인문고 등을 망라하여 실사도 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장목록을 입수하여 수록한 것이다.

배열은 간본과 사본으로 구분하여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권말에는 편저자의 색인을 첨부하였다.

목록의 기재사항은 주로 백린이 편한 「古書目錄規則」에 따라 서명을 표목으로 하고, 배열은 그 표목의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한 단 내려서 저자, 편자, 출판지, 출판자, 간행년도, 판종, 권책수, 장정, 크기, 주기, 그리고 소장처의 순서로 표시하였다.

이 목록은 문헌서목의 일종으로서 실물을 보지 않고 수록한 것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 서지사항에 오류가 많은 것이 결점이지만 한국의 문헌을 가장 양적으로 방대하게 집대성한 점에서 유용한 서지자료이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418 면)

崇禎紀元後四丁亥慶科增廣司馬榜目 (純祖 27年) △ 芸閣 純祖28年(1828) 活字本(丁酉字) 1冊(43張) 35.6×23.2cm. 四周單邊 半匡 : 24.7×16.9cm 10行 18字 版心 : 上花紋魚尾 (서명순)

4) 「李朝書院文庫目錄」은 이춘희가 도산서원, 옥산서원 등 15개 서원에 소장된 고서를 조사하여 작성한 목록으로 1969년에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하였다.

배열은 서원별로 구분하고, 동일 서원 내에서는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40 면)

益齋亂稿 李齊賢(高麗)著 △ 木板本 慶州, 肅宗9(1693) △ 10卷3冊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四周雙邊 有界 10行 18字 半郭 : 15.9×20.1cm. (서원별, 서명순)

5) 「古書目錄」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약 20만 권에 이르는 고서중 1집과 2집은 1945년 이전의 고서를 수록하여 1970년과 1971년에 간행하고 3집과 4집은 1946년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수록대상으로 하여 1972년과 1973년에 발간하였다. 5집과 6집은 4집 간행 이후에 수집된 고서를 수록한 것으로 1980년과 1994년에 간행하였다

1~3집까지의 배열은 유별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본관 고서의 청구기호 순으로 하였다. 4집부터의 배열은 역시 유별로 대별하고 기본기입의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3집까지 사용된 분류체계는 1945년 이전에 사용하던 십진분류이고, 4집부터는 박봉석 편, 『韓國十進分類表』에 의거했다.

목록의 기술에 있어서 그 기재 순서와 방법은 1~3집의 경우 김치우 편 『古書目錄規則』을 따르고, 4집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의거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제1집, 155면)

謨訓輯要[저자주기입상 서명표목] (朝鮮)尹 應大 等奉教纂. 古活字本(丁酉字) 春坊, 1831. △ 6卷 3冊. 四周單邊, 半郭24.8×17.1 cm. 10行 18字. 內向 葉花紋魚尾. 30.9×20.5 cm. (한-31-25)

6) 「善本解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45년 이전에 수집된 고서와 그 후 수집된 전체 고서 중 임진왜란(1592) 이전의 韓國本, 명 萬曆(1573) 이전의 中國本, 元和(1615) 이전의 日本版本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 명인들의 수사본, 수택본 등을 합한 희귀서 총 600 여종을 선택하여 해제한 것으로 1970년에서 1973년 사이에 제1집에서 제4집이, 2003년에 제5집과 2004년에 제6집이 발간되었다.

배열은 분류별로 구분하고, 동일 분류항목내에서는 표목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분류는 1945년 이전에 본 도서관 고서정리에 사용되었던 10진분류이다. 기입사항은 표목, 서명, 권차, 저자, 판본 및 판차, 간행사항, 권책수, 삽도류, 광곽의 종류, 계선, 항자수, 판구 및 어미, 크기, 주기사항의 순으로 기록하였으며 해제에는 내용을 요약한 개설, 내용소개, 저자소개, 판본소개, 삽도, 異板 등을 포함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제1집, 195면)

최, 해 △ 東人之文, 卷 10~12, (高麗)崔瀆 編 木板本. 福州(安東) 1355. △ 74張. 四周單邊, 半郭 23.9×16cm. 無界 9行 13字 下向黑魚尾 34.2×20.3cm. (貴-2, 한-43-가174)

7) 「장서목록: 고서해제편」은 서울시립중로도서관에 소장된 한국본고서와 중국본고서 654종의 해제목록으로 1971년에 제1집을 간행하였으며, 그후 1983년에는 그 후속으로 117종을 수록하여 제2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배열은 유별로 대별하고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韓國十進分類表」이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제1집, 48면)

禪家龜鑑 △ 釋 宗遂 著 木板本 1冊(2卷) 仁祖1年(1633)刊 28cm×17.7cm 裝釘: 正字文白色厚褙表紙 靑絲綴 半面匡廓: 18cm×13.6cm 版心: 上下黑魚尾 半面行數: 8 每行字數: 16 (228.7)

8) 「東瀛文庫藏書目錄」은 동양사학자인 고 동빈 김상기가 1971년과 1973년 두차례에 걸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한 고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1973년에 「장서목록: 한고적편」에 첨부하여 발간하였다. 고서 1,851종은 한국본과 중국본을 포함하며, 이외에 고문서와 일반도서도 수록하고 있다. 경사자집의 사분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특히 사부에 속하는 역사 관련 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배열은 유별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청구번호순으로 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韓國十進分類表」이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207면)

李廷龜 月沙先生集辨誣奏 山淸 1804 1冊 29cm 木板本 (古814)

9)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은 1972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중국본 고서 5,601부 62,082책에 대한 목록이다

배열은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기본기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58면)

大學[저자주기입상 서명표목], 朱熹(宋)章句 [刊年未詳] △ 1冊(18張) 古活字本(整理字) 25.1×18.9cm. △ 四周單邊. 半葉匡廓: 20.4×13.7cm. 9行, 1行17字. 註雙行. 版心: 上黑魚尾. (중1875)

10) 「石洲文庫目錄」은 1973년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서 395종 1,309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간한 목록이다.

배열은 귀중서와 일반고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貴”와 “貴中”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주고, 일반고서는 五分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서 사분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12면)

김 백간, 편 △ 詞訟類聚 金伯幹, 編. [全州府, 宣祖 18(1585)] 木板本 △ 冊 (34張) 圖. 32.1×22.9cm. △ 四周雙邊. 半匡 : 22.2×15.8cm. 有界. 11行 23字. 版心 :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貴 22)

11) 「海史文庫目錄 : 漢籍」은 1974년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20종 34책의 한적목록을 작성하여 서양서와 동양서의 목록 다음에 첨부하여 발간한 것이다.

배열은 청구번호순으로 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의 「漢籍分類表」에 의했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49면)

칠만대법 △ 七大萬法. [著·譯子未詳] 豊基, 池叱方寺, 宣祖2(1569) 木板本. △ 1冊. 29.7×20.6cm. △ 四周單邊. 半匡 : 20.3×15.5cm. 有界. 9行20字. 版心 :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C3-A98)

12) 「薪庵文庫漢籍目錄」은 고 신암 金約瑟이 1971년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장서, 즉 신암문고 중 정리가 완료된 한적 1,612종 2,305책을 수록하여 1974년에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임진왜란 이전의 목판본, 고헌자본, 병자호란 이전의 필자본 등의 귀중서를 비롯하여 서첩, 기독교관계 동양서, 고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학 및 서지학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배열은 귀중서와 일반고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귀중서의 일련번호를 주고, 일반고서는 五分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 사분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한 것이다. 목록의 기입은 自館의 古書目錄規則에 따라 표목, 청구기호, 서명, 저자표시, 출판사항, 판본표시, 형태사항, 판식주기, 일반주기, 내용주기의 순으로 기술하였고, 권말에는 저자, 서명, 피전자를 포함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색인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39면)

영조, 조선 제21대 왕, 1694~1776 △ 御製八旬裕昆錄 英祖 撰 金 陽澤, 等校正. 芸閣, 英祖 51(1775). 活字本(壬辰字) △ 1冊(零葉1張) 31.2×19.2cm. △ 四周雙邊. 半匣: 21.6×13.5cm. 有界. 8行 15字.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B9-A47)

13)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은 1974년 장서각에 소장된 중국본 고서 1,200종 25,839책에 대한 목록이다.

배열은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13면)

毛詩註疏 △ 鄭 玄(漢)箋, 孔穎達(唐)疏. 木板. [靑, 乾隆40(1775)]. △ 20卷 20冊. 四周雙邊, 半郭 17.9×12.5cm. 有界. 半葉 9行 21字, 註雙行. 23.9×15.3cm. 線裝. (1-92)

14) 「韓國典籍綜合目錄」은 국학자료보존회에서 문예진흥 5개년계획에 의한 국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편찬한 비소장 목록으로 1집에서 3집까지는 1974년에, 5집과 6집은 1975년에, 그리고 6집은 1976년에, 그리고 7집은 1978년에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전적을 소장처별로 개인 소장가, 사찰, 서원, 교회, 사회단체 및 연구소, 각종 도서관 및 박물관, 기타 각 기관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수록하되 대상자료는 한국에서 간행 또는 書寫

된 전적을 비롯한 고문서, 탁본, 간찰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에서 간행 또는 서사된 것이라도 귀중하거나 희구한 자료는 포함하였다.

목록기입의 형식에 있어서 표목은 서명을 일률적으로 채택하고, 다음 행부터 찬자, 판중, 간행사항, 형태사항, 그리고 서문, 발문, 간기, 내사기 등 주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하였다.

배열은 소장처별로 구분하고, 사분법으로 대별한 다음 유와 속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으며, 색인은 서명, 찬자명으로 구분하여 음순으로 배열하여 말미에 첨부하였다. 고서의 소장처는 山氣文庫(1집, 1974), 尙態文庫(2집, 1974), 玩樹文庫(3집, 1974), 誠庵文庫(4집, 1975), 仁壽文庫(5집, 1975), 陶南文庫(6집, 1976), 成均館大學校圖書館(7집, 1978) 등이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제6집, 16면)

六典條例 △ 高宗(朝鮮王)命編. 全史字版. 高宗 3(1866)刊. △ 10卷 10冊. 四周單邊, 半郭 21.4×14.9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白魚尾. 29.7×19.5cm. 線裝 (서명순)

15) 「景和堂文庫目錄」은 경화당 朴炯允 이 1972년에 기증한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의 경화당문고본 1,143종 3,828책의 한적목록을 수록한 것으로 1975년에 발간되었다.

배열은 귀중서와 일반고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貴”와 “貴中”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주고,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일반고서는 五分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 사분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한 것이다. 목록의 기입은 자관의 古書目錄規則에 따랐으며, 권말에 색인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40면)

송 주상. △ 華陽誌 宋 周相, 著. [純祖 7(1807)] 木板本. △ 2卷 2冊. 32.5×21.9cm. △ 四周雙邊. 半匡: 23.6×15.8cm. 有界. 10行 22字, 小字雙行. 版心: 上下白口. 上花紋魚尾 (B16-A27)

16) 「華山文庫漢籍目錄」은 고 화산 李聖儀 가 기증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화산문고 중 한적 1,811종 7,358책을 수록하여 1976년에 발간한 목록이다.

배열은 귀중서와 일반고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일련번호를 주고,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일반고서는 五分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 사분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한 것이다. 목록의 기입은 自館古書目錄 규칙에 따르고 권말에 색인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56면)

정 병석 편. △ 鄭氏三世忠孝錄 鄭 秉錫 編. [憲宗15(1849)跋] 木活字本(印書體) △ 2卷1冊. 31.6×20.3cm. △ 四周單邊. 半匡 : 23.4×15.8cm. 有界. 12行21字. 版心 : 白口. 內向花紋魚尾. (B12-A447)

17) 「漢籍目錄」은 1977년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고서 1,029종, 4,982책의 목록을 수록하여 발간하였다.

배열은 귀중서와 일반고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貴”와 “貴中”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주고,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일반고서는 五分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 사분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83면)

허 준 ?~1615 △ 東醫寶鑑. 許浚 奉教撰. 純祖14(1814)[後刷] 木板本(訓練都監字覆刻) △ 零本 24冊(目錄合). 35×22.7cm. △ 四周雙邊. 半匡 : 24×16.7cm. 有界. 10行21字, 小字雙行. 版心 :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한 149)

18) 「古書目錄」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장서중 고서만을 수록한 것으로 1910년 이전 간본을 대상으로 하되 그 이후에 간행된 것이라도 1910년

이전에 개관된 것은 포함하여 1977년에 1집을 발간하였다. 2집은 1집에서 빠진 것과 1집 이후부터 1986년 여름까지 사이에 수집한 고서 5,324종 18,892책을 수록하여 1987년에 간행하였으며, 기술은 1집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1집의 배열은 「듀이십진분류표」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동일 분류 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말미에는 개인문고의 목록을 별도로 구성하여 합간하였으며 권말에 편저자와 서명을 혼합배열한 색인을 첨부하였다.

그 1집의 기술은 1집의 경우 원저에 있는 그대로 移記하고 서명은 권두서명을 채기하였으며 표목은 서명으로 하였다. 회구본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여 열람이 제한되는 도서임을 나타내었다.

1집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제1집, 402면)

高麗名臣傳 △ 南公轍 全史字本 12卷6冊 四周單邊 匡廓; 22×16cm. 有界 10行20字 上黑魚尾 (서명순)

2집의 배열은 「듀이십진분류표」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동일 분류 내에서는 일반도서는 서명, 개인의 문집류와 철학서는 저자명, 전기서는 피전자명, 족보류는 성씨명, 지방사는 지역명 등의 자모순으로 혼합 배열하였다

그 2집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 제3판을 근간으로 하여 自館에서 1985년에 제정한 古書目錄記述法 에 따라 저록의 일련번호, 청구번호, 서명, 편저자명, 간기, 간사본표시, 권책표시, 책의 크기, 주기의 순으로 기술하고, 부록으로 귀중도서목록과 개인문고목록을 첨부하였으며, 권말에는 주제명색인과 서명저자색인을 부었다.

2집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제2집, 119면)

周禮/黃叔琳 [著]; 姚培謙 重訂; 王永祺 參閱. - 光緒丙申[1896]重刊成文信藏版, [中國木板本]. - 6卷冊; 24cm △ 10행19자 주소자쌍행 : 상흑어미, 계선, 사주단변; 174×126mm (표목순)

19) 「晚松金完燮文庫目錄」은 고 만송 김완섭이 1920년부터 1975년까지 수집하여 기증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 4,899종, 19,071책을 수록하여

1979년에 발간한 목록으로 본 중앙도서관 한적분류표의 분류순에 따라 사부로 분류하고 귀중서는 따로 모아 첫 머리에 서명순으로 배열하였으며 말미에는 고문서를 수록하였다.

배열은 귀중서, 일반고서와 고문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貴”와 “貴中”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주고, 서명순으로 배열하였다. 일반고서는 五分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 사분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하고, 끝에는 고문서부를 첨부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자관의 古書目錄規則에 따르고 권말에 색인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317면)

한 수 1333~1384 △ 柳巷先生詩集 韓 儼高麗 著 權 近 朝鮮 批點 木板本
[錦山 定宗2(1400)] △ 1冊 25×13.6cm. △ 上下單邊 17.7×10.9cm. 11行20字 上下黑口 下向黑魚尾 (貴 357)

20) 「古書目錄」은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에 대하여 제1집에는 4,622종 38,693책, 제2집에는 1,708종 6,421책, 제3집에는 4,436종 14,929책의 목록을 각각 수록한 것으로서 1979년, 1981년, 2002년에 각각 발간하였다.

배열은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하고 서명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自館의 「古書分類表」에 의하였으며 이관본일 경우에는 분류기호에 연결된 수입순번호 다음에 로마자 소문자 a, b, c, d 순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목록의 기입은 본 도서관의 정리규정에 따라서 서명을 표출하고, 行을 바꾸어 찬자, 판중, 간행사항, 서사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을 기술하고, 2개의 개인문고는 서명, 찬자, 권책수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책의 끝에는 서명색인과 편저자색인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記述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同書, 제2집, 69면)

李子性理書 △ 李珥(1536~1584) 著, 李度中 編. 木板. 順調16(1816)刊. △ 不分卷 1冊(58張). 四周雙邊, 半郭 21.9×15.5cm. 有界 半葉 10行 20字 內向

葉花紋魚尾. 30.5×20.7cm. 線裝. (悟齋 C2-171)

기타 1954년 이후에 발간된 古書目錄으로서 다음과 같은 30종이 더 있으며, 기술형식은 위의 표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 (1) 1961년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고서전시목록」.
- (2) 1965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의 「奎章閣圖書目錄」 4책 한국본 경·자부·보유 1책, 한국본 사부 3책. 프린트판.
- (3) 1965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의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 (4) 1966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의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 프린트판.
- (5) 1967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貴重圖書展示目錄」.
- (6) 1968년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金剛般若波羅密經展觀目錄」.
- (7) 1969~71, 74, 2002년 부산시립도서관의 「釜山市立圖書館所藏 貴重本圖書解題」 1~5.
- (8) 1970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일산문고목록」 프린트판.
- (9) 1970년 국회도서관의 「羅麗文籍志」.
- (10) 1970년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古活子本·古地圖 및 古地圖本展示目錄」.
- (11) 1971년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漢籍目錄」.
- (12) 1971년 한국은행 도서관의 「圖書目錄：古書篇」.
- (13) 1972년 독서신문부산지사의 「有刊記佛書展示圖書目錄」.
- (14) 1971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본관소장수택본 전시목록」.
- (15) 1971년 충무처 중앙행정도서관의 「한적목록」 프린트판.
- (16) 1972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문고총목록：위창·일산·우촌·승계문고」 프린트판.
- (17) 1972년 장서각의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 (18) 1973년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藏書目錄：漢古籍篇」.
- (19) 1974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장서목록：육당문고：고서」.
- (20) 1974년 국학자료보존회의 「誠巖文庫目錄」.
- (21) 1975년 장서각의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補遺篇」.
- (22) 1976년 국학자료보존회의 「惠愚文庫目錄」.
- (23) 1976년 국학자료보존회의 「在昇文庫目錄」.
- (24) 1976년 국학자료보존회의 「松岩文庫目錄」.
- (25) 1976년 국학자료보존회의 「元堂文庫目錄」.
- (26) 1976년 국학자료보존회의 「維谷文庫目錄」.
- (27) 1976~79년 국립중앙도서관의 「外國古書目錄」 I~IV.
- (28) 197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초판.
- (29) 1978년 국립중앙도서관의 「古辭書 展示目錄」.
- (30) 1979년 문화재관리국의 「耆隱朴文秀圖書目錄」 등이다.

먼저 표본으로 제시한 고서목록 20종과 뒤에서 간략식으로 제시한 고서목록 30은 다음과 같이 25개의 간행처에서 발간되었다

(1)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종. (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6종. (4) 국립중앙도서관 ⇒ 7종. (5) 국학자료보존회 ⇒ 7종. (6) 국회도서관 ⇒ 2종. (7) 독서신문부산지사 ⇒ 1종. (8) 동국대학교 도서관 ⇒ 1종. (9) 문화재관리국 ⇒ 1종. (10) 부산시립도서관 ⇒ 1종. (11) 서울대학교 규장각 ⇒ 1종. (12)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1종. (13)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 3종. (14) 서울시립종로도서관 ⇒ 1종. (15)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16)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 1종. (1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2종. (18)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3종. (19) 이인영 ⇒ 1종. (20) 이춘희 ⇒ 1종. (21) 장서각 ⇒ 3종. (22) 총무처 중앙행정도서관 ⇒ 1종. (23) 한국민족미술연구소 ⇒ 1종. (24) 한국은행 도서관 ⇒ 1종. (25) 해군사관학교 도서관 ⇒ 1종 등이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간행되어 1980년 이후에 발간이 계속된 것은 본고에 포함시켜 함께 다루었다. 그런 목록은 아래의 6종이 있다.

(1) 부산시립도서관 「부산시립도서관귀중본도서해제」 5집(2002). (2)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5집(1980)과 6집(1994). (3)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5집(2003)과 6집(2004). (4) 서울시립종로도서관 「장서목록 : 고서해제편」 2집(1983). (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2집(1987). (6)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2집(1981) 등이 있다.

3. 版本表示

3.1 위치

古書目錄에서 판본표시의 위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등 세 군데이다. 판본표시를 판사항에 하는 이유는 판본도 역시 同書

異板의 간행된 次序 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판본을 가지고 판차를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간행사항에 하는 이유는 그것을 간행의 한 수단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형태사항에 하는 이유는 판본을 물리적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다 일리 있는 주장들이라고 생각된다.

판본을 판사항에 표시하는 古書目錄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화재관리국 등의 각종 古書目錄類와 고려대학교 古書目錄類(1979년 이후), 연세대학교 「古書目錄」(제1집) 등이 있다.

판본표시를 간행사항에 하는 古書目錄으로 대표적인 것은 1976년 이전의 고려대학교 석주문고, 신암문고, 해사문고, 경화당문고, 화산문고의 각종 古書目錄類와 그 외 연세대학교 「古書目錄」(제2집), 해군사관학교 「古書目錄」 등이 있다. 이렇게 하도록 규정한 규칙으로는 박봉석 편, 「(朝鮮)東書編目規則」이 있다.

판본을 형태사항에 표시하는 古書目錄으로 대표적인 것은 서울대학교의 각종 古書目錄類가 있다. 이와 같이 판본을 형태사항에 하도록 규정한 규칙으로는 백린 편, 「古書目錄規則」이 있다.

3.2 用語

古書目錄에서 판본표시 용어에는 “版”자나 “本”자를 붙인다. 이와 같이 판본표시의 용어는 “版”으로도 하고 “本”으로도 하고 있으나 “本”자로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 대개 활자판, 목판 등이라는 말보다는 활자본, 목판본 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며, 또 사본인 경우는 부득이 “판”자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版”자를 쓰는 주된 이유는 판차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판차와 판본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 확실한 판차를 모르면 판본으로 기재한다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古書目錄의 판본표시에서 “版”자를 붙이는 것으로는 성균관대학교, 동국대

학교, 장서각, 국학자료보존회 등의 각종 古書目錄類가 있다. 이렇게 규정한 목록법으로는 친혜봉 저, 「古書分類目錄法」(下)과 박봉석 편, 「(朝鮮)東書編目規則」이 있다.

木板
庚午字版
甲寅字版

판본표시에서 “本”자를 붙이는 예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이 있다.

木板本
庚辰字本
生生字本

위의 경우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편찬된 각종 古書目錄類(프린트판)에서는 고활자본인 경우에는 고활자본이라는 상위개념의 용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개개의 활자명을 원괄호로 묶어서 기재하고 있다. 즉 古活子本(庚辰字), 古活子本(生生字) 등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1976년 以前の 고려대학교 각종 古書目錄類에서는 活子本(庚辰字), 活子本(生生字)이라고 “古”자를 빼고 기재하였으며, 1979년 以後의 목록에서는 活字本이란 말도 빼고, 甲寅字, 戊申字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목판본이나 사본 등도 활자본에 준하여 1976년 以前에는 목판본, 사본이라 하고, 1979년 以後에는 목판, 필사라고 하였다. 기재위치는 전자의 경우 간행사항이고, 후자의 경우 판사항이다.

판본표시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활자본을 번각본한 경우이다.

甲寅字翻刻本
壬辰字翻刻本
整理字翻刻本

이와 같이 하면 무슨 활자를 翻刻했다는 의미처럼 보인다. 결코 그렇지 않

다. 이것은 무슨 活字本の 翻刻本이지 무슨 活字의 翻刻本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활자명 뒤에 “本”자를 붙이는 것이 분명하여 좋을 것이다. 이런 경우 “本”자가 전후로 2개씩 되어 앞의 것은 생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소 억지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무슨 활자본이라고 기재하고, 翻刻本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甲寅字本翻刻本
壬辰字本翻刻本
整理字本翻刻本.

3.3 用語의 上·下位 概念

古書目錄에서 판본표시의 용어는 전체적인 상위 개념의 용어와 개별적인 하위 개념의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古書目錄으로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과 1976년 이전 고려대학교의 각종 古書目錄類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성균관대학교, 문화재관리국 등의 각종 古書目錄類이다.

그러면 전자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판본을 표시하는 古書目錄의 하나인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의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에 나타난 예를 보자.

寫本(後寫)
古活字本(全史字)
古活字本(訓練都監字)

이 방법은 고려대학교의 「華山文庫漢籍目錄」을 보아도 거의 같다. 다만 “活字本” 앞에 “古”자만 빠졌을 뿐이다.

木板本
活字本(甲寅字)
活字本(乙亥字)

이번에는 후자에 해당되는 개별적으로 판본을 표시하는 古書目錄의 예를 성균관대학교 「古書目錄」에서 살펴보자.

木板
初鑄甲寅字混入補字版
新鉛活字版

이상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인지는 이용자의 수준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앞의 서울대학교 古書目錄의 예와 같이 판본을 포괄적인 용법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일반 이용자에게 적합할 것이며, 뒤의 성균관대학교 古書目錄의 예와 같이 구체적인 용어로 판본을 표시하는 방법은 서지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할 것이다.

3.4 판본의 역조표시 문제

3.4.1 역조표시의 필요성

판본표시에는 역조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 이용자를 위해서 좋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카드목록에서는 판본표시에서 주로 역조명을 관기하여 왔고, 현재에도 구두로 판본을 말할 때는 대체로 역조를 선행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古書目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판본에서만 역조 대신 국적을 관기하거나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여 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역조표시는 대개 저자표시란에서 해주고 있으나 이렇게 하면 古書目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 일례로 그 저자와 다른 나라에서 간행된 도서로 간년을 모르거나 외국의 연호로 간년을 표시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 간행된 도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간본은 상당히 많다. 그러한 예를 국립중앙도서관의 「古書目錄」에서 살펴보자.(同書, 제 1집, 17면)

웅, 강대 △ 性理群書(宋)熊剛大集解(明)吳訥補註. 木板本. [刊年未詳]

△ 14卷 4冊. 四周雙邊, 半郭 20×12.9cm. 10行 20字.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6.8 × 16cm (貴-14, 한-16-79)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면 어느 나라 도서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조선에서 간행된 도서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역조인 조선을 표시할 곳이 없다. 간년도 미상이므로 이곳에도 역조나 국적표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적 불명의 도서로 알게 된다. 참으로 곤란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는 도리밖에 없다. 즉 이 방법을 위의 예에 적용 시켜보자.

웅, 강대 △ 性理群書 (宋)熊 剛大 集解 (明)吳 訥 補註. 朝鮮木板本. [刊年未詳]

이와 같이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면 어느 나라의 도서인지 즉시 알 수 있어서 대단히 편리하다. 만일 저자명에 역조를 표시하게 되면 그 저자명을 모르는 경우도 역조를 표시하기가 불가능하다. 일례를 『선본해제』에서 살펴보자.(同書, 제1집, 220면)

眉叟遺事[저자명주기입상의 서명표목] [編者未詳] 寫本 [年紀未詳] △ 44 張
31.4×20.9cm. (貴-58, 한-56-나 76)

이것은 내용에 의해서 조선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본서에는 眉叟 許穆에 관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고, 그 외 尹善道の 「孤山遺事」, 權認의 「炭翁遺事」, 南九萬의 「藥泉遺事」, 安纘의 「鶴村遺事」가 아울러 수록되어 있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소론은 자연히 남인들과 화합이 되었는데 이 책은 남인과 소론을 위주로 편찬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판본으로 사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古書目錄의 기술만 보고서는 도저히 어느 나라 책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저자가 미상이라서 역조를 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한 결점은 다음과 같이 역시 판본에 역조를 冠記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眉叟遺事 [編者未詳] 朝鮮寫本.

이와 같이 사본에는 編著者未詳이나 年紀未詳의 고서가 대단히 많다. 이런 경우 판본에 역조명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도서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저자로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간년미상의 도서를 「선본해제」에서 살펴보자.(同書, 제1집, 65면)

불전. 원각경 △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疎鈔注] (唐)佛陀多羅 譯, 宗密 略疎鈔 (宋)如山 注. 木板本(後刷) [刊年未詳] △ 6卷 6冊. 四周單邊, 半郭 24.7×20.5cm. 9行 15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38.6×24.8cm (貴-393, 한-21-241)

본서는 원각경의 연구로 이름난 당나라 종밀의 「圓覺經略疎鈔」 6권을 송나라 章江禪院沙門 如山이 注한 불전으로 간년이 미상이다. 목록의 기술로 보아서 어느 나라 고서인지 불분명하다. 단지 판식의 형태에 의해서만 임난 이전에 간행된 조선의 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판본을 식별하자면 어느 정도 서지학에 식견이 있어야 하고, 또 古書目錄에도 다소 조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이란 역조를 표시할 곳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판본에 역조표시를 해주면 쉽게 해결된다.

불전. 원각경 △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疎鈔注] (唐)佛陀多羅 譯, 宗密 略疎鈔 (宋)如山 注. 朝鮮木板本(後刷)

이와 같이 역조표시를 기술에서 해 줄 경우는 판본표시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고서는 판본의 명칭을 통해서 어느 나라의 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편리하다. 그러므로 판본이 고서의 대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역조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판본에서 역조표시를 할 경우 그 위치는, 그 판본 앞에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관습이 그렇고, 또 중국, 일본 등의 외국고서는 대개 판본에서 역조대신 국적을 아래와 같이 冠記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木板本

中國石印本
日本活字本

3.4.2 간년의 역조표시 생략 가능

판본표시에서 역조를 표시하면 간년에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대개 古書目錄에서 조선 이후의 간년에는 역조표시를 하지 않고, 고려 이전의 판본에는 간년에서 역조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 즉 이원화되어서 불편하다.

木板本, 新羅 景德王10(751)
木板本, 高麗 高宗21(1234)
木板本, 正祖19(1795)

이와 같이 간년표시가 이원화되는 문제는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면 쉽게 해결된다. 어쨌든 현대 목록은 자동화목록이므로 아래의 예와 같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新羅木板本, 景德王10(751)
高麗木板本, 高宗21(1234)
朝鮮木板本, 正祖19(1795)

실제로 古書目錄에서 실례를 살펴보자. 다음은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目錄』의 예이다.(同書, 22 면)

가 어 △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王 廣謨(明) 句解 元版覆刻 江陵 蒼巖書院
[忠肅王(高麗)11(1324)刻後刷] 木板本(後刷) [刊年未詳 (貴 14A)]

여기서는 판본에서 역조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년에서 역조를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고, 다시 刊年未詳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면 조선 이후의 古書目錄처럼 아래와 같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가 어 △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王 廣謨(明) 句解 元版覆刻 江陵 蒼巖書院
[忠肅王11(1324)刻後刷] 高麗木板本(後刷) [刊年未詳]

또 이렇게 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古書目録에서 판본을 표시할 때도 中國木板本이니 日本木板本이니 하고 국명을 冠記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의 古書目録에서는 판본에 국명을 표시하고, 간년에서는 연호만 쓴다. 그러나 특히 중국의 연호는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역조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 왕의 연호인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먼저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에 나타난 청판본에서 간년을 표시한 예를 살펴보자.(同書, 70면)

尙書大全[서명주기입상의 서명표목] 蔡沈(南宋)集傳. 金陵書局開, 光緒7年(1881) △ 6卷4冊. 中國木板本. 26.2×15.7cm (중5155)

이런 경우에도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면 일관성 있는 판본표시가 된다. 위의 예와 같이 간년은 연호만 쓰고, 판본에 中國이라고 표시한다면 중국 어느 역조의 연호인지 쉽게 확인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 이런 문제도 판본표시에서 역조를 표시해 주면 모두 해결된다.

尙書大全 蔡沈(南宋)集傳. 金陵書局開, 光緒7年(1881) △ 6卷4冊. 淸木板本 26.2×15.7cm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고서로서 중국의 연호로 나타난 간본이라도 중국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연호를 간년으로 표시한 목록으로 판본에서 역조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어느 나라 고서인지 구분되지 않는 고서목록도 있다. 이런 고서목록으로 연세대학교 古書目録이 있다. (同書, 제2집 67면)

改正大學 / 盧守愼 編集. - 萬曆壬寅[1602] 玉山重刊, [木板本] - 12張 ; 31cm △ 10行18字 註小字雙行 : 上下內向花紋魚尾, 有界, 四周雙邊, 160×209mm (7566)

여기에서는 어디에서도 역조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나라 간

본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판식을 보면 조선본 간본이다. 그러나 판본에 식견이 없는 사람은 중국년호 때문에 중국 도서로 오인하기 쉽다. 비록 玉山이라고 있지만 어느 나라 옥산인지 지명인지 쉽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저자를 아는 사람은 조선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면 이런 의문점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즉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면 된다.

改正大學 / 盧守愼 編輯. - 萬曆壬寅[1602] 玉山重刊, [朝鮮木板本]

실제로 간년은 그 도서에 나타난 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의 연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고서로 오인할 염려도 있고, 또 자주성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의 묘호로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판본에서 역조표시를 해주면 간년을 묘호로 바꾸어 기재하든지 그대로 기재하든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본에서 역조를 표시하는 방법은 전혀 새로운 방법도 아니며 이미 과거 日帝時의 카드 목록이나 서지자료에서 “朝鮮銅活字版”, “朝鮮木板”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의 간본에는 古書目錄에서도 역조 대신 국적을 기재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판본에서 역조를 기재하여도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닌 것이다.

외국 간본의 판본표시에서 국적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규칙으로는 백린 편, 「古書目錄規則」이 있다. 그것에 의하면 간년이 전연 불분명한 외국고전은 그 판본에 국명을 冠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실례를 「奎章閣圖書中國本總目錄」에서 살펴보자.(同書, 287면)

丹鉛餘錄, 陽慎(明) 著 [明版本] △ 13卷 2冊. 中國木板本. 26.2×17.2cm.(奎5096)

그러나 위의 목록에는 아래의 예와 같이 간년이 분명하더라도 외국 간본의 판본에는 모두 국명을 관기하고 있다.(同書, 258면)

三合便覽, 富俊(淸)撰. 本宅藏版. 乾隆57年(1792) △ 12卷 12冊. 中國木板本

27.6×17.8cm. (중4507)

이와 같이 판본에 국명을 관기하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고서에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편리하다. 그러나 국명만을 관기하면 너무 광범위하여 해당역조를 쉽게 알 수 없는 폐단이 있다. 위의 예에서 “中國木板本” “乾隆 57年(1792)”하면 乾隆年號를 사용한 淸나라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느 나라 연호인지 쉽게 확인되지 않는 불편한 점이 있다. 따라서 판본에 국명을 표시하려면 역조명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이어서 좋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일목요연해진다.

三合便覽, 富俊(淸)撰 本宅藏版, 乾隆57年(1792) △ 12卷 12冊 淸木板本
27.6×17.8cm.

이렇게 외국 판본에서도 국적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역조로 표시하는 것이 분명하여 좋다. 또 고려 이전의 간본에는 판본에 역조표시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목록법이 있다. 그것은 千惠鳳 著, 『古書分類目錄法』(下)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同書, 113면)

법화경 △ 妙法蓮華經, 鳩摩羅什 譯 戒環 解 高麗木板

그러므로 古書目錄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 고려 이전의 간본에서는 판본에 역조를 표시해주어도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을 더 확대하여서 조선 이후의 간본에도 적용시키면 될 수 있을 것이다.

3.4.3 저자의 역조표시 생략 가능

판본에서 역조를 표시하면, 저자표시에서 일일이 역조를 표시하지 않고 판본의 역조와 다른 저자의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그것을 표시하여 주면 된다.

尤菴遺稿 / 宋時烈 著 ; 權尙夏 校 - 朝鮮寫本 稿本
方正學文抄 / 方孝孺(明) 著 ; 安鼎福 編 - 朝鮮木板本
賢首諸乘法數 / 賢首(唐) 編 ; 行深(明) 重編 - 朝鮮木板本

위의 예에서 든 3종의 간본은 모두 조선의 간본으로 저자표시에서 조선인이 아닌 것은 明의 方孝孺, 唐의 賢首, 明의 行深 등 3명이다. 바로 이와 같이 판본의 역조와 저자의 역조가 다른 경우만 저자의 역조표시를 해주면 대단히 편리하다. 이렇게 하면 조선시대에 조선인이 저술한 상당수의 고서는 古書目錄의 저자표시에서 역조를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판본에서 역조명을 일괄적으로 기재하면 다소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서에도 판본에 전부 역조를 기재해 주어야 된다는 점이다. 즉 조선시대의 모든 판본에는 전부 “朝鮮木板本”, “朝鮮甲寅字本” 또는 “朝鮮古活字本(甲寅字)”, “朝鮮寫本”이라고 朝鮮이란 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서지기술목록은 기재양식을 가급적 단일화 시켜야 하는 것이 근본이고 또 기존식 방법에서 판본과 간년의 표시가 이원화되는 점에 비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신서목록에서는 역조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구태여 기존의 古書目錄처럼 번잡하게 모든 저자에 대해서 역조표시를 해야하는가는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위의 예를 작금의 古書目錄 양식대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尤菴遺稿 / 宋時烈(朝鮮) 著 ; 權尙夏(朝鮮) 校. - 寫本(稿本)
方正學文抄 / 方孝孺(明) 著 ; 安鼎福(朝鮮) 編. - 木板本
賢首諸乘法數 / 賢首(唐) 編 ; 行深(明) 重編. - 木板本

이렇게 古書目錄을 작성하면 어느 나라에서 간행된 전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술의 어디에서든지 역조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그 대안의 하나가 전술한 바와 같이 판본표시에서 역조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저자에서의 역조표시는 예외로 하여 선별적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아래와 같이 그것을 모두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尤菴遺稿 / 宋時烈 著 ; 權尙夏 校. - 朝鮮寫本(稿本)
方正學文抄 / 方孝孺 著 ; 安鼎福 編. - 朝鮮木板本
賢首諸乘法數 / 賢首 編 ; 行深 重編. - 朝鮮木板本

실제로 현대식 목록은 기술의 저자표시에서 역조를 표시하는 것이 없으나 古書目錄에서는 부득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역조는 판본표시에서만 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나라 간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외국 판본에서 국적 대신 역조를 표시한 古書目錄은 보지 못했으나 목록법에서 그렇게 역조를 표시하도록 언급한 규정은 있다. 그것은 千惠鳳 著, 「古書分類目錄法」(下)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同書, 113면)

법화경 △ 妙法蓮華經, 鳩摩羅什 譯, 戒環 解. 明木板.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 古書目錄에서도 외국의 간본에 역조를 표시해주어도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을 더 확대하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이후의 간본에도 적용시키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이전의 판본에 역조를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조선 이후의 판본에도 역조를 표시해주면 되듯이, 외국의 판본에서 국적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역시 조선 이후의 판본에 역조를 표시해 주면 될 것이다.

4. 結 論

20세기 중반기에 발간된 각종 古書目錄의 실태를 알아보고, 판본기재 방법의 형식을 분석하여 보았다. 당시의 古書目錄을 조사하여 보니 약 50종 정도로 이중 1923년부터 1954년까지 1종, 1954년부터 1980년까지 19종 모두 20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서지적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주로 거기에 수록된 책수, 古書目錄上의 배열, 기술양식 등을 위주로 고찰하여 보았다.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는 30종의 古書目錄에 대해서도 간행년, 편찬처, 서명을 제시하여 당시 그것의 전체적인 발간 현황을 알게 하였다.

기술사항 중 판본표시는 역조명을 冠記하여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구명하여 보았다. 古書目錄에서는 판본표시에서 역조를 표시하지 않아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려 이전의 간본에서는 간년에 역조를 표시하여 간년표시가 이원화되고, 또 외국의 간본에는 판본에서 역조대신 국적을 표시하여 판본표시가 이원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외국의 모든 간본의 판본에서 역조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생긴다.

1. 한국, 중국, 일본 등 모든 국내외 간본의 판본에 역조를 표시하면 그 기재방법이 일원화된다.
2. 간년에 외국의 연호를 사용하여도 어느 역조의 판본인가 알 수 있다.
3. 고려이전 간본의 간년에 역조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외국 간본의 판본에 국명 대신 역조를 표시하면 더욱 명확하게 판본을 식별할 수 있다.
5. 저자나 간년 미상의 간본이라도 어느 역조의 판본인지 알 수 있다.
6. 저자표시의 역조가 판본의 것과 동일하면 생략할 수 있다.
7. 판본에 역조를 기재하면 현대목록처럼 모든 저자의 역조를 생략하여도 어느 나라의 간본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단행본기술규칙」. 서울: 동 도서관, 1991.
- _____. 「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단행본용포맷」. 서울: 동 도서관, 1991.
- _____. 「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고서기술규칙」. 서울: 동 도서관, 1991.
- 김치우. 「고서목록규칙」. 부산: 부산여대, 1973.
- _____. 「고서편목규칙」. 부산: 부산여대, 1982.

- _____. 「목록작성의 실제」, 부산: 세종, 1993.
- 도태현. “한국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 박봉석. 「(조선)동서편목규칙」, 서울: 국립도서관, 1948.
- 백린. 「古書目錄規則」, 서울: 서울대도서관 1973.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제2집. 서울: 동도서관 1987.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기술법」, 미발행 원고본. 서울: 동도서관, 1985.
- 윤병태. 「한국고서정리법연구」, 서울: 이구출판사, 1983.
- _____. 「한국서지학개론」, 서울: 한국서지정보학회, 1985.
- 제홍규. 「한국서지학사전」, 서울: 경인문화사, 1982.
- 천혜봉. 「고서분류목록법」, 下.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 _____. “고서목록에 있어서의 당면한 제문제”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2.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 기술표목올림지시편」, 3.1판. 서울: 동협회, 1983.
-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편목규칙」, 서울: 동도서관, 1962.
- 한국은행조사부. 「한은도서편목법」, 서울: 동조사부, 1954.
- 현영아. “고전적의 형태기술에 관한 연구: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의 형식을 중심으로.” 「도서관학」 제20집(1991). 271-293.
- 「Chinese MARC Format」, 2nd ed (Taipei: National Central Library, 1984).
- 「ISBD(A):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Older Monographic Publications (Antiquarian)」, Loc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0.
-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1990.
- 본문에서 직접 대상이 된 고서목록은 그 수량이 많아서 생략함.

КСІ